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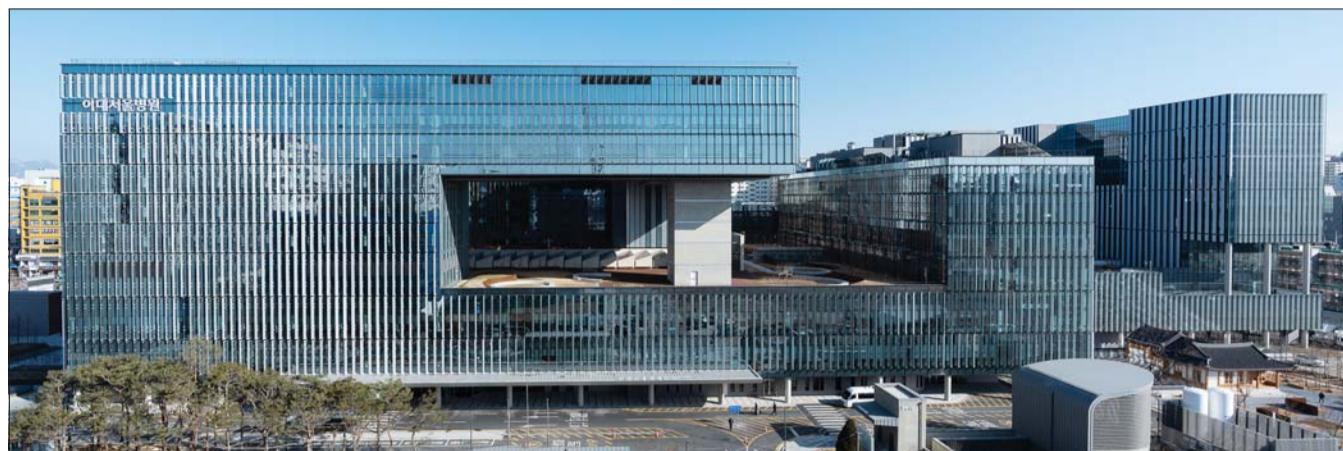
명의로 꾸려진 ‘드림팀’… 쾌적환경에 마음의 병까지 짹~

이대서울병원을 가다

〈上〉 호텔같은 병원

지하철 5호선 발산역과 연결
환자이동·의료진·외래환자 등
동선 고려해 4개 통로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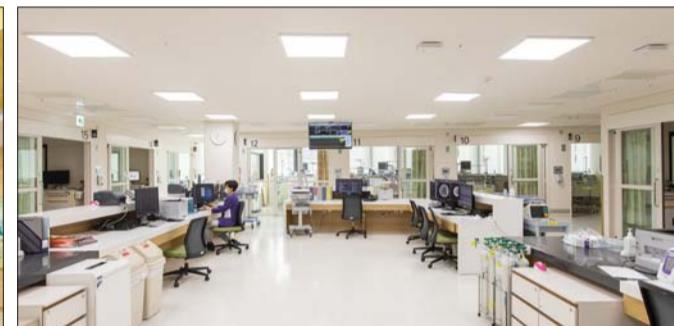
예약·수납·보험 등 앱으로 처리
국내 첫 전 중환자실 1인실 설계



이대서울병원 전경



이대서울병원 로비 '아뜨리움'



전체 1인실로 이루어진 이대서울병원 중환자실

이대서울병원이 개원한지 100일이 지났다. 서울 마곡동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2월7일 첫 진료를 시작했고, 5월23일 정식 개원했다. 기준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이 1인실로 구성됐고 모든 의료진이 전문으로 이루어진 ‘스마트 병원’이다. 매주 수요일엔 음악회가 열리고, 상시 미술 전시회가 열리며, 병원 한가운데는 커다란 정원을 품었다. 식막함을 벗고 문화와 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난 곳, 오로지 환자만을 생각한 병원으로 의료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이대서울병원을 찾아가봤다. 〈편집자주〉

병원은 대체로 긴장감을 주는 공간이다. 답답한 공기와 소독약 냄새, 기저에 깔린 묵직한 분위기 탓에 건강한 사람들도 일단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곳은 다르다. 처음 만나는 아늑한 조명과 쾌적한 공기는 호텔 로비에 들어선 듯 했고, 웅장한 내부는 오페라하우스나 컨벤션센터, 대형 쇼핑몰의 중간 어디쯤 와있는 듯 했다. 긴장과

불안 대신 편안함을 주는 곳, ‘호텔 같은 병원’ ‘환자 중심 병원’을 표방하는 이대서울병원의 첫 인상은 그랬다.

◆환자를 위해 설계된 병원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이대서울병원은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병원이 바로 연결돼 접근성이 뛰어났다. 병원을 들어서자 편의시설들이 눈에 띠었고, 가장 먼저 관절·척추센터가 눈에 들어왔다. 내원객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한 이용이 편리하도록 동선을 배치한 결과다.

1층에 올리서자 그동안 접해왔던 대형 병원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단순히 소독약 냄새와 인테리어 때문 만은 아니다. 이 곳에선 의료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가 그다지 눈에 띠지 않는다. 환자를 실은 이동 침대도 쉽게 볼 수 없다.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동선’ 덕이다.

이대서울병원에는 4개의 통로가 있다. 양쪽 끝 통로는 각 진료과와 진료센터를 거쳐가기 때문에 의료진과 간호사, 이동 병상은 이 통로로 이동한다. 보호자나 일반 외래환자들이 이용하는 가운데 통로에는 상시 미술전시가 열리는 ‘아트큐브’와, 수요일마다 음악회가 열리는 무대가 있다. 병원이 병원같지 않은 가장 큰 이유다.

더욱 큰 차이는 한적함이다.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외래 환자 수가 늘면서 현재

1일 평균 1500명 이상이 이대서울병원을 찾고 있지만, 복적이는 느낌은 전혀 없

다. 외래 진료과가 있는 모든 종마다 원무 수납 창구와 체혈 검사실 등을 배치해,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대서울병원이 지난 7월 오픈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예약, 진료, 수납, 처방, 보험 까지 모든 것을 스마트폰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

편육범 이대서울병원장은 “환자용 모바일 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카카오포메이 등과 연계되는 통합형 플랫폼을 구축해 진료와 수납은 물론, 실손 보험 청구, 모바일 처방전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상의 가치로 스마트 진료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의 ‘드림팀’을 만난다

이대서울병원은 국내 처음으로 기준 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 1인실로 설계돼 환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여유롭다. 진료과는 센터를 중심으로 둑여 환자들에게 최적의 진료환경을 제공한다.

이대서울병원에는 현재 관절·척추센터, 소화기센터, 심뇌혈관센터, 암센터, 폐센터 등 5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관절 척추센터에는 관절류마티스내과, 신경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가 포함된다. 신경외과는 관절척추센

터, 심뇌혈관센터, 암센터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는 “환자는 여러 진료과를 오갈 필요 없이 한 센터에서 모든 진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환자 대신 전문의들이 여러 과를 오가면서 진료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문의들 간의 협진도 큰 장점이다. 이대서울병원에서는 레지던트와 인턴을 찾을 수 없다.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의료진이 ‘전문의’로만 구성된다. 한밤중이나 주말에 응급실을 찾아도, 숙련된 전문의의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치료 효율성과 안전성도 그 만큼 높다.

박소영 이대서울병원 중환자실장은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경험과 실력이 풍부한 전문의들이 바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진을 시작한다”며 “그만큼 환자 대처시간이 짧아지고, 진료 시너지가 높아지는 것이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이대서울병원은 뇌하수체종양 수술 명의인 김선호 교수와 폐암 명의인 성숙환 교수를 영입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명의급 의료진을 영입해 심장이식 명의인 서동만 교수, 대장암 명의인 김광호 교수 등 기준 의료진과 함께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그야말로 ‘드림팀’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대서울병원 3인실(기준병실)



이대서울병원 웰니스 건강증진센터

인터뷰 | 박 소 영 중환자실장

“중환자실 유리문, 환자·보호자 심리적 불안감 줄여”

“1인공간 넉넉해 의료진 집중투입”

이대서울병원의 중환자실은 모두 독립 1인실로 구성돼 있다. 병실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전면에 커다란 유리문이 설치됐다. 병상 사이를 키운 것으로 막아놓은 일반 중환자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1인 중환자실의 가장 큰 장점은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여겨져왔다. 하지 만 환자와 보호자가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독립된 공간에서 오는 안정감이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커튼으로 막혀 있다고는 하지만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의 진료 과정이 노출되기도 한다”며 “특히 옆 병상의 환자가 임종을 맞는 모습, 가족들의 우는 소리가 다 들려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종기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는 것도 장점이다. 면회 시간은 하루 2회, 면회 가능 인원은 2인으로 제한돼

있지만, 임종기를 맞은 환자들에 한해 그 제한을 풀어준다.

박 실장은 “중환자실은 사실상 임종기를 맞은 환자들의 호스피스 케어가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며 “임종이 가까운 80~90세 연로한 분들은 면회 시간을 늘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는 것도 독립된 공간이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1인 중환자실은 환자별 집중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 효율을 높이기도 한다.



터링이 한눈에 이루어지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력부족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중환자실 30병상은 박 실장이 혼자 담당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번 밤샘 당직을 서는 일도 다반사다. 내년에 18개 병상이 추가로 문을 열고 순차적으로 중환자실 60병상을 가동할 예정이지만 인력 충원도 쉽지 않다.

박 실장은 “전공의도 없이 30병상을 혼자 감당해야해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 중환자실에 지원하는 전문의들도 거의 없어 인력 부족은 대부분 병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중환자실 전담 의료진에 급여 인상 등의 혜택을 제공해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